주간 보험동향

2001.1.29	동향분석팀	제66호

1. 금주의 Highlight

◆ 구조·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 급증

2. 금융동향

◆ 금리 : 전주대비 0.02%p 하락

◆ 환율 : 원/달러 상승, 엔/달러 상승

◆ 주가 : 전주대비 4.5% 하락

3. 보험산업 동향

◆ 금감원, 보험사에 '위험관리위' 설치 유도

◆ 외국계 생보사들 공격영업 '시동'

◆ 2 3개 손보사 '퇴출위기'

KIDI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금주의 Highlight : 구조·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 급증

□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건설 일감 부족·신규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등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금년 1/4분기 중 실업자 수가 100만 120만명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o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290곳을 대상으로 올 1/4분기 근로자채용 전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의 67.2%가 올 1/4분기에 근로자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여짐.

o 근로자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300 4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40.5%로 가장 높았고, 500인 이상 기업이 38.5% 그리고 100 299명인 기업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노동부는 중장기 고용정책의 비젼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中期 雇傭政策基本計劃」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o 노동부는 3%대 실업률 당성을 목표로 2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OC 투자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o 특히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로서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2001년 실업전망 >

(단위 : 천명, %)

구 분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2,269 (61.1)	21,719 (59.8)	22,432 (61.6)	22,464 (61.5)	22,463 (61.4)
실업자수 (실업률)	**829 (3.7)**	**944 (4.3)**	**853 (3.8)**	**757 (3.4)**	**761 (3.4)**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11월 전망 (경제선순환 및 실업대책 정상추진을 전제)

2. 금융동향

□ 금리

- 회사채 금리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주말 연휴 이후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음주 물가 및 산업생산 동향 발표, 연준리의 금리결정 등에 주목하며 관망세를 지속, 소폭의 하락세 시현. 전주 대비 0.02%p 하락.
-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보합.

주요 채권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전주대비
회사채	7.64	-	-	-	7.62	-0.02%p
국 채	5.77	-	-	-	5.77	-

□ 환율

- 원화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역외세력의 매수강도가 약화되며 소폭 강세를 보이다가 주말 주가지수 급락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전환의 영향으로 약세로 반전.
- 엔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미국 정부가 120엔대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Yamasaki 자민당 의원의 해명 발언 등에 따라 강세를 보이다가 닛케이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 속 약세 마감.
- 유로화는 주중반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ECB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저하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현저한 미 경기둔화세를 재확인한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발언 영향 등으로 강보합세 시현.

주요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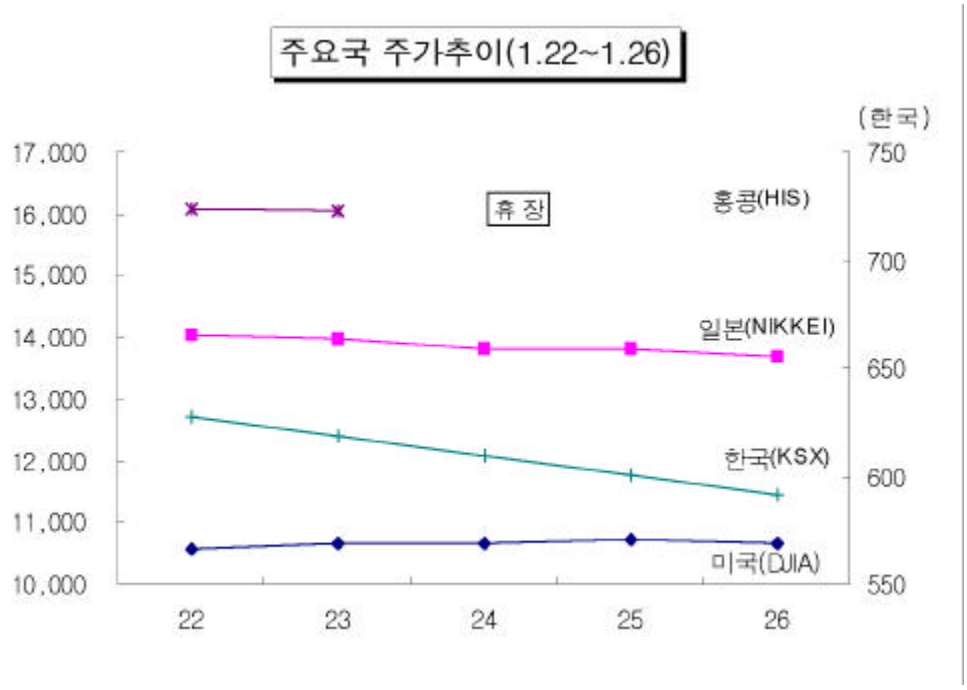
구 분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전주대비
원/ 달러	1,273.90	-	-	-	1,280.30	+3.50
원/ 100엔	1,089.73	-	-	-	1,095.40	+9.69
엔/ 달러	116.28	116.70	117.84	116.90	117.25	+0.08
달러/ 유로	0.9390	0.9352	0.9220	0.9238	0.9245	-0.01

□ 주식시장

- 금주의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며 강세를 보이다가 주말 나스닥 급락과 함께 외국인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대거 순매도 반전함에 따라 급락세 시현.
-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4.5% 하락.
-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그린스펀 의장의 감세 정책 지지 발언 영향과 제약업체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말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 블루칩들이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로 반전. 전주대비 0.7% 상승.
- 일본은 2.1% 하락.
- 홍콩은 0.7% 상승.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구 분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전주대비
한 국(KSX)	627.45	-	-	-	591.73	-28.05
미 국(DJIA)	10,578.24	10,649.81	10,646.97	10,729.52	10,659.98	+72.39
일본(NIKKEI)	14,032.42	13,984.66	13,823.18	13,803.38	13,696.06	-293.06
홍 콩(HIS)	16,099.27	16,044.21	-	-	-	+110.66



3. 보험산업동향

□ 금감원, 보험사에 '위험관리위' 설치 유도

- 금감원은 22일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 보험사들이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을 관리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에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을 밝힘.
- 관계자는 동 기구는 효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써 최근 생·손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자산운용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며 위험관리는 회사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풀이함.
-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에 대한 관리원칙을 조속히 마련, 시행토록 했으며 보험사들이 제출한 위험관리 추진계획을 토대로 올 상반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 경영실태평가에 이를 반영할 방침임.

□ 외국계 생보사들 공격영업 '시동'

-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올해 영업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임.
- 메트라이프는 11개인 지점 수를 20개까지 늘리기로 하고 대도시에 장소를 물색중이며 2백여명인 남성전문설계사 조직도 2배 가까이 늘리고 1천1백명 수준인 여성설계사도 4백명 가량 충원하기로 함. 또한 올초부터는 상해보험과 암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텔레마케팅 조직도 가동함.
- 알리안츠 제일생명의 설계사 수는 현제 1만4천명 수준인데 올해 1,500명의 여성설계사를 모집하며 이밖에 남성전문설계사,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채널을 새로 만드는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으며 자회사인 프랑스생명과 전략적 제휴처인 하나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임.
- ING생명도 재무설계사를 현재 2,029명에서 2,700명으로, 지점은 51개에서 63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푸르덴셜생명 역시 현재 800여명인 남성설계사 조직을 2백여명 가량 확충하기로 함.

□ 2 3개 손보사 '퇴출위기'

- 금감원은 지난주 종료된 리젠트화재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 9 정례회의에서 리젠트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게 될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리젠트, 국제 등 2 3개 중소형 손보사가 퇴출위기에 몰리고 있음.
- 금감원은 리젠트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코리아온라인(KOL)의 대주주인 미국 위스콘신주 연기금 관계자와 접촉, 리젠트화재에 대한 회생 의지를 최종 확인할 방침임.
- 254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해 온 국제화재도 증자를 포기한 상태이며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화재도 증자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며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일화재도 증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